5

학습

영예의 붉은 수첩

어린 혁명 전사들

제4차 당대회에 드림

소년단

1961.9

축하를 드립니다

정 문 향

우리는 노래 부르며 뛰놉니다.
밝은 교실 책상에 마주앉아 우리는 공부
합니다.
힘차고 씩씩하게 언제나 명절 처럼,
우리는 즐겁고 기쁘기만 합니다.

그 언제나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고요한 방에 혼자앉아 책을 읽을때도,
신나고 재미나서 서로 웃고 떠들때도,
푸른 바다'가 파도 설레는 야영소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당과 수령님 은혜를

가슴마다 붉은 넥타이 날리며 우리는 자
랑합니다.
아름다운 사회주의 꽃동산에 태여난 것을,
마음대로 노래하며 춤추며 배우는
조선 로동당의 크나큰 품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더 없는 영광을 드립니다. 당 대회에
우리는 압니다 더욱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더욱더 보람찰 우리의 앞날을 마련해 주
기 위해
승리의 큰 명절로 열리는 당 대회에

마음속에 기쁨과 맹세를 다지며
우리는 축하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천리마 탄 것처럼
우리도 어서 모두 최우등 모범 분단 쟁취
하자고

꼬마 7개년 계획 우리도 앞당기며
공산주의 투사들처럼 서로 돕고 사랑하며
모두모두 씩씩하게 자라며 배워
당과 수령님 가르침에 보답하자고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소년단》 1961년 9호 내용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윤 복 진 (제 7 회) 그림 최 순 천

☆ 잊을 수 없는 그 해 봄

원수님이 여덟 살 나시던 해 봄이였습니다.

때 늦은 눈보라를 뿌리며 물러 나기 싫어서 발버둥질을 치던 겨울도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그만 머리를 숙이고 밀려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넓은 대동강에 둥둥 떠 돌던 얼음'장도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한 겨울 막혔던 배'길도 풀렸습니다.

강'가의 수양버들은 파릇파릇 봄'빛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지런한 원수님 댁 집안 어른들은 벌써 봄갈이 차비에 떨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창 봄갈이 차비에 바쁠 때 원수님 댁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 왔습니다.

강동에 있는 봉명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던 원수님의 아버님이 독립 만세 사건으로 왜놈 경찰에게 붙잡혀 갔던 것

입니다.

놈들은 죄 없는 아버님을 류치장에 가두고서는 밤낮 없이 무서운 고문을 들이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큰 《죄》를 꾸며서 들씌우려고 미쳐 날뛰였습니다.

밤낮 없이 계속되는 무서운 고문 앞에서도 아버님은 굳은 절개를 지키셨습니다. 이 땅에 자유의 새 봄이 멀지 않아 오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굳세게 싸우셨습니다.

아버님이 경찰서에서 무서운 고통을 겪으시며 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원수님은 자나 깨나 아버님 생각에 골몰하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무사히 모셔 내오나?》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원쑤를 갚을가…》

원수님의 어린 가슴에는 잠시도 아버님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 동무들과 노시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면 집에 뛰여 들어 오셔서 어머님을 보고 아버님의 소식을 물으시고는

《엄마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아버지 원쑤를 갚고 말래요.》 하고 두 손으로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의 가슴에는 아버님의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세차게 불타 올랐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원수님이 꾸미시고 노신 놀이들은 언제나 왜놈을 치고 잡는 내용이 주되는 것으로 되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이런 놀이에서 언제나 왜놈을 치는 대장이 되셨고 용감한 지휘관이 되셨습니다.

원수님의 어린 가슴 속에는 원쑤에 대한 증오심과 함께 붉은 애국의 사상이 나날이 싹이 트며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 어떻게 하면· 아버님의 원쑤를 갚나.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만경대 고향'집 길 건너 산 밑 푸른 잔디 밭에는 작은 바위 둘이 형제처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푸른 바다에 두둥실 뜬 군함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원수님은 어린 시절 해만 뜨면 이 바위 우에서 동무들과 《군함 놀이》를 즐겨하셨습니다.

원수님은 언제나 큰 바위 우에 높이 올라 타시고 왜놈 치는 대장이 되시였습니다. 긴 나무 칼을 휘두르시며 어린 동무들을 원쑤 치는 싸움에로 불렀습니다.

어린 원수님은 왜놈 치는 대장만 되신 것은 아닙니다.

《군함 바위》 놀이가 끝나면 푸른 잔디 밭에 둘러 앉아서 동무들의 가슴 속에 애국의 붉은 씨앗을 뿌려 주셨습니다.

《왜놈들을 몰아 내야만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된다.

왜놈들과 지주놈들만 없어지면 우리 나라는 참 좋아진다. 그 때는 우리 조선 사람 끼리 살 테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어린 원수님은 종종 나무'가지에 종이기'발을 만들어 높이 들고 《조선 독립 만세》 놀이를 잘 하셨습니다. 많은 동무들을 거느리고 만경봉에 올라 가 큰 소리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이렇게 동무들과 손을 잡고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나면 아버님의 원쑤를 갚은 것처럼 가슴이 풀리는 듯 하였습니다.

경봉 우에 높이 솟는 아침 해도 더 밝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해 봄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는 빼앗긴 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일제 놈들을 반대하는 3.1 운동이 일어 났던 것입니다.

왜놈 경찰과 군대는 삼천리 강산을 뒤흔드는 만세 소리에 겁을 집어 먹고 총칼을 함부로 휘두르며 우리 조국의 땅을 붉은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애국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경대 고향 집에 왜놈 경찰들이 개 떼처럼 몰려 왔습니다.

놈들은 집안 어른들을 토방 우에 꼼짝도 못하게 세워 놓고서

《그래 권총은 어데다 감추었어?》

《독립군 명단은 어데다 숨겨 두었어?》

놈들은 두 눈깔을 까 뒤집으며 미친 개 마냥 으르렁 댔습니다.

놈들은 더러운 구두'발로 방안에 들어서 집안 살림 살이를 살살이 뒤졌습니다.

어머님이 소중히 다루시는 롱짝을 함부로 막 뒤지며 깨여진 낡은 독 밑까지 살살이 뒤지며 집 안팎을 발칵 뒤졌습니다.

이 때 원수님은 밖에서 노시다가 이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 오셔서 울바자 뒤에서 놈들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원수님의 어린 가슴에는 큰 불'덩어리가 왈칵 치밀었습니다. 치솟는 분한 그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놈들이 우리 아버지를 잡아 가고 또 게다가 집에까지 와서 저 지랄을 하다니…》

정말 총이 한 자루 있었으면 모조리 탕탕 쏘아 쓰러 눕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야만 속이 시원히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원수님에게는 총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의 키는 아직도 장총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원수님은 참으로 분하고 안타까왔습니다. 원수님은 얼른 저고리 속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고무 총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동무들과 함께 귀중한 곡식을 함부로 까먹거나 《까욱까욱》 보기 싫은 검은 까마귀를 쏘던 총이였습니다.

《옳지, 이 총을 가지고 놈들의 대갈통을 한 번 쏘아 주자!》

원수님은 얼른 고무총을 꺼냈습니다. 총알처럼 동글동글한 돌 하나를 고무총에 재웠습니다.

그러시다가 무슨 생각이 나셨던지 주은 그 돌을 버리시고 끝이 뾰죽뾰죽한 조그마한 사금파리 하나를 주으셨습니다.

울바자 틈으로 놈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칼을 찬 원쑤 왜놈의 대갈통을 겨누고 한 방 쏘았습니다.

사금파리 총알은 씽하고 그 놈의 머리우로 높이 날아 갔습니다.

원수님은 너무도 분한 마음에 손이 떨려 잘 겨누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방의 사금파리 총알을 쏘았습니다. 이번에는 씽하고 그 놈의 귀'전을 때리며 날아 갔습니다.

그 놈은 두 눈깔을 휘번쩍 깜짝 놀라며《칙쇼, 어느 놈이 돌 총을 쏘았소까?》 하고 사립문 밖으로 뛰여 나왔습니다.

이 때 울바자 밖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우루루 달아 났습니다.

원수님은 그 놈을 마치지 못한 것이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였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꾸나, 이댐에 진짜 총으로 저놈들을 모조리 탕탕 쏘아 잡아야지!》

어린 원수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어서 빨리 크기만해라, 내 기어히 아버지의 원쑤를 갚고야 말걸!…》

☆ 어머님의 가르침

누구보다 아버님의 크신 뜻을 잘 리해하시고 잘 받들어 섬기시던 어머님은 아버님이 잡혀 가신 일로하여 가슴에 큰 못이 박혔습니다.

비록 입 밖에 내시지는 않았으나 분하고 섭섭한 마음은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원수님의 어머님은 젊은 시절에 가난한 집에 시집을 오셔서 어려운 생활을 꾸려 나가시기에 피 땀을 흘리셨고 아버님의 글 공부 뒤를 보살피시기에 무척 힘을 썼습니다.

더구나 아버님이 조국 광복의 크신 뜻을 품으시고 동 서 남 북으로 나다니실 때 어머님은 밤이나 낮이나 가슴을 죄이시였습니다.

아버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신 후 어머님은 넓은 세상 한 구석이 텅 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어린 아들이나 집안 어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약한 사람의 가슴에서 솟는 것이라는 것을 어머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감옥에서 무서운 고생을 하신지도 벌써 석 달이 훨씬 넘은 어느 날 달

밤이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앞에서

《엄마 몇 밤만 자면 아버지는 돌아 오시나요?》 하고 물으실 때

《백 밤 자면 돌아 오신단다.》 하고 대답하시던 그 백 밤도 훨씬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아버님에 대한 근심이 더욱 커 갔습니다. 더구나 짐승 같은 왜놈들에게 갖은 고생을 다 겪으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님의 생각을 한시 한때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날 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 뒤에 있는 《그네 터》에 올라갔습니다. 보름'달은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푸른 대동강에는 낯선 배들이 오고 가며 《에헤야, 데헤야》 부르는 배'사람들의 노래 소리는 한결 처량하게 들려 왔습니다.

어머님은 어린 아들을 무릎 우에 앉히시고 쌍그네를 뛰셨습니다.

그네는 쉴 새 없이 오락가락하였습니다.

《엄마, 백 밤이 지났는데 아버지는 왜 오시질 않아요?》

어린 아들의 이 말에 어머님의 가슴 속에 깊이 감추었던 설음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참을려고 애를 썼지만 눈에는 그만 이슬이 맺혔습니다. 눈물은 달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우지 말아요. 내가 꼭 아버지 원쑤를 갚을래요.》

어린 아들은 팔 소매로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시다가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오냐 중손아 네가 커서 꼭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 아버지는 너를 크게 믿고 계신단다. 그래서 네가 아주 어릴 때부터 무릎에 앉히시고 〈나라에는 영웅동 되여라〉 하시며 네가 자라서 나라의 큰 영웅이 되기를 믿고 바라셨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크신 뜻을 잘 받들어 이어 나가야만 한다. 너는 커서 꼭 나라를 찾는 영웅이 되여야만 한다. 엄마도 아버지처럼 너를 그렇게 믿는단다.》 하시고는 어린 아들을 덥썩 끌어 안으셨습니다.

《엄마, 걱정 말아요. 내가 아버지와 엄마 앞에서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어기지 않을테야요.》

《그럼 너는 어떻게 아버지 원쑤를 갚으려니.》

《진짜 총만 얻으면 원쑤놈들을 막 쏘아 갚을래요.》

어린 아들은 그네에서 뛰여 내리며 총을 쏘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귀여운 아들을 한참 동안 쳐다보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어려서 진짜 총은 쏠 수 없다. 그러니 아버지의 원쑤를 갚으려면 무엇보다 공부를 잘 해야 한다. 어서 글을 많이 배워서 아버지가 읽으시던 훌륭한 책들을 줄줄 읽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댐에 아버지 원쑤를 더 잘 갚을 수 있다.》 하시며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어린 아들을 옳게 사랑하시고 가르치신 어머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님의 어머님처럼 어린 아들을 언제나 곧게, 바르게, 씩씩하게, 가르치신 훌륭하신 어머님은 세상에 드뭅니다.

어머님은 어린 아들을 훌륭한 애국자로 기르시는데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바치셨습니다.

참으로 어머님은 아들의 가슴에 붉은 애국심을 북돋우시고 키우시기 위하여 아버님에게 못지 않게 크신 정성과 노력을 다 바쳐왔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로동당 제 4차 대회를 경축하여—

박 세 영

그림 어 순 우

우리들은 우리 당 제 4 차 대회를 명절 가운데서도 제일 큰 명절로 맞는다. 그래서 전체 인민들이 이 대회를 열광적으로 경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나라들과 온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도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

우리 당 제 3 차 대회가 있은 이후 불과 5년 남짓한 동안에 우리 나라는 세계를 놀래우는 천리마의 나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지상 락원을 건설해 놓았다. 세상에 이 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으랴.

만일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옳바른 령도가 아니였드라면 꿈엔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겠는가.

정말 우리 나라는 크나 큰 자랑을 가지고 있다. 해방 전 악독한 일제 침략자가 우리 나라를 짓밟았을 때는 우리 손으로 성냥 개비나 못 한 개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은 황해 제철소와 김책 제철소의 거창한 용광로를 비롯해서 자동차, 뜨락또르는 말할 것도 없고 3 천 톤급 철선이며 푸레스를 못 만드나 전기 기관차를 못 만드나, 6 메터 호삥을 못 만드나 우리가 만들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손으로 못 만들 기계란 없게 되였다.

이것은 뒤 떨어졌던 우리 나라가 당의 옳바른 정책으로 하여 오늘은 훌륭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찬란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까지에는 힘에

겨운 길을 걸어 왔다.

어느 정도 밑 바탕이 있는 데다가 더 세운 것도 아니요 넓힌 것도 아니다.

전쟁을 승리로 끝낸 후 재'더미를 헤치고 하나 하나 새로 건설 한 것이다.

참으로 우리 당 제 3 차 대회 이후에 우리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령도하에 우리 나라 근로자 아저씨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을 많이 해 놓았는가!

이리 하여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지상 락원으로 되였다.

김 일성원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천리마 운동의 불'길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활활 타 오르게 되였다.

천리마 운동의 불'길은 천리마 기수의 대렬을 날로 무수히 자라 나게 하였으며 눈부시게 빠른 속도는 기적을 낳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세계에서 첫째가는 대규모의 비날론 공장도 우리 기술과 우리 자재 우리 로력으로 만든 것이며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 드리는 크나큰 선물 중의 하나이다.

김 일성 원수님 께서는 비날론 공장 준공식에서 우리 건설자들이 이런 큰 공장 건설을 불과 1년 남짓한 동안에 해 낸 데 대하여 높이 찬양 하셨다.

근로자 아저씨들은 청진과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도 비날론 공장의 건설 속도보 다도 더 빠르게 해 내였다. 우리 천리마 기수인 아버지, 형님, 누나들은 달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날은 것이다.

우리 당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들에게 더 큰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우리고 있다.

기계가 기계를 낳으며 새끼 기계가 큰 기계까지도 만들어 내게 하였다. 벌써 우리 나라 공업은 기계화와 자동화의 길로 넘어 가고 있으며 지난날 근로자 아저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으로 하던 일도 기계들이 대신 해 주고 있다.

닳아 빠진 보섭과 괭이와 호미로 짓던 농사를 뜨락또르와 자동차들이 해 주고 있다.

농민들은 황금의 전야를 당 대회에 선물하려고 100 만 톤의 알곡 증산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백만 정보의 새 땅 얻어 내기 투쟁과 30 만 정보로 과수원을 늘쿠는 투쟁으로 바다를 막고 산을 헐어 내렸다.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좋은 것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것이라도 해내고야 마니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소년단원인 우리들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서 당이 베푸는 일이다.

당은 동무들에게 행복하게 마음껏 배워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라고 수 많은 학교들을 세워 주고 있다. 또한 굉장한 아동 궁전과 곳곳에 야영소를 세워 동무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소년단원들은 오늘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야 오늘 미국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남조선의 아동들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며 삶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가에 대해선 잘 알겠지만.

나도 어렸을 때는 오늘의 남조선 아동들의 형편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때문에 오늘 당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소년단원 동무들이 더 없이 부러운 것이다.

긴긴 여름 날에 끼니를 수 없이 굶던 일이며, 월사금을 못내 울던 일이며, 모자 하나를 살 수 없어 담배 곽으로 모자 모양을 만들어서 먹 칠을 해서 쓰고 다니다 비를 맞아 먹물이 흘러 내리던 일, 교과서를 사지 못해 남의 교과서를 베껴 쓴 것으로 배우던 일, 가지가지 눈물겹던 일들이 오늘도 내 눈 앞에 어린다.

어린 나였지만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긴 슬픔으로하여 잠을 못 자던 밤도 한 두 번이 아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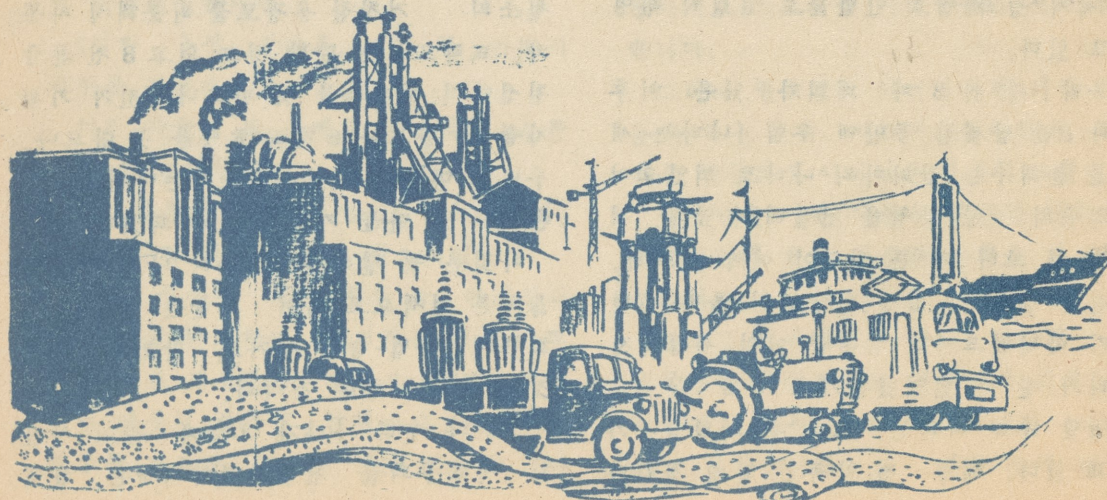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소년단원 동무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행복의 어머니—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바다 같이 넓으신 품이 소년단원들을 꽃봉오리로 사랑하시며 은혜로운 그 품에 떠 않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데 제 4 차 당 대회는 우리 나라에 더 눈부신 앞 날을 가져 오기 위하여 그 날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룩하기 위하여 훌륭한 계획을 펼쳐 놓을 것이다.

살아도 죽는 것 같이 고생하는 남조선 형제들을 구원해 줄 더 큰 밑천을 만들어 놓으며 하루 속히 미국놈들을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게 하고 평화스럽게 조국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남북 삼천리가 온통 지상 락원이 되겠끔 우리 당은 마련할 것이다.

소년단원 동무들! 기뻐 뛰며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 영광을 드리자. 당과 수령님의 만세를 부르자. 천리마 기수들을 뒤따르는 자랑스러운 후대들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학습하며 공산주의 붉은 마음을 키우며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람으로 준비하자.

그리하여 장차 당의 위업을 이어 받을 믿음직한 앞날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자라자!

원수님의 두터운 사랑속에서

농촌의 주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원수님이 우리 학교를 다녀 가신지도 벌써 2년이 되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시여 친 아버지 처럼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실행에 힘써 왔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실험 실습을 많이 하여 쓸모 있는 산 지식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근로자 아저씨들이 눈부신 생산 성과를 원수님 앞에 떳떳이 보고하며 제 4 차 당 대회를 맞는 오늘 우리들은 원수님이 주신 어귀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힘써 왔는 가를 이야기 하려 합니다.

원수님께서 다녀 가신 후 우리 학교 단 위원회에서는 먼저 모든 동무들이 다 크루쇼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크루쇼크를 다시 조직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분단 동무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자기 취미에 따라 크루쇼크 생활을 하게되였습니다.

크루쇼크를 이렇게 다시 조직한 후에는 물리 실험실, 공작실, 야장'간, 재봉실 등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충분히 실험할 수 있게 실험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산 크루쇼크에서는 복숭아, 추리, 사과, 감, 포도, 양딸기, 배 등 1,000 여 본의 과실 나무를 심은 과수원을 꾸려 놓았습니다. 이 과수원은 원수님께서 학교에 다녀 가신 날인 6월 8일을 기념하여 《6.8 과수원》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토끼, 돼지, 양, 염소, 닭, 오리 등 우리 고향 협동 조합에서 키우는 모든 종류의 가축들도 키우고 양어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갖추고 단 위원회에서 자주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를 조직하면서부터 우리 분단 동무들은 크루쇼크 사업에 있는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산 크루쇼크원인 김 옥화 동무는 양딸기를 멋있게 키워 전람회에 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딸기 밭을 돌보았습니다. 옥화 동무는 딸기 넌출이 뻗기 시작하자 누구 보다 먼저 손을 써서 딸기 넌출이 잘 뻗으라고 매 포기마다에 덕대를 세워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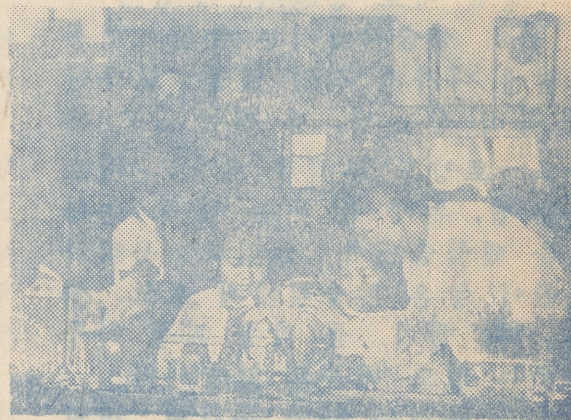
어느 날 딸기 밭을 돌아 보시던 식물 선생님이 덕대를 보시고 옥화 동무에게 식물과에서 배운 양딸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옥화 동무는 그때야 양딸기는 땅에 붙어 뻗어 나가며 번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였습니다. 배운 것을 까마득히 잊고 생각나는 대로 딸기를 가꾼 옥화 동무는 지난날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자기 학습 태도를 뉘우쳤습니다. 이 동무 뿐만 아니라 공작 크루쇼크원인 리 응연 동무도 그러했습니다.

그가 만든 기중기의 모양은 아주 그럴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게

실험 실습은 언제나 흥미 있지요

사회주의 건설을 도와

한 장의 파지라도 더 많이 모으고 한 포기의 피마주, 해바라기라도 더 가꾸며 한 마리의 토끼라도 더 잘 키워 쓸모 있는 지식을 다지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돕겠다는 갸륵한 마음은 어느 한 동무만이 아니였다.

이 산 저 산을 오르 내리며 약초를 캐낸 산간 마을 동무들도,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는 동무들도, 자기 집과 주위에 피마주, 해바라기를 심은 도시의 동무들도. 160 만의 전체 소년단원들이 한 마음 한 덩어리가 되여 《고마 5 개년 계

의 비중이 맞지 않아 제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그런 기중기였습니다.

응연 동무는 목수 일엔 재간이 있지만 물리에서 배운 활차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루쇼크 사업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날마다 생겼습니다.

분단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놓고 토론도 하고 경험 교환회도 가지 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재간을 키우면서 배운 지식을 익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습으로 익혀 나가는 한편 원수님의 말씀 대로 농촌의 주인이 되기 위해 실습지에서는 물론 협동조합에 나가서 직접 일을 도우면서 곡식 심는 법, 김 매는 법도 배우고, 토양도 분석해 보고, 비료 주는 법, 논에 물 대는 법 등 농사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과수원에서 포도, 사과, 배, 딸기 등 각종 과실 나무 가꾸는 법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주 농기계 작업소 아저씨들을 찾아 가서 농기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것으로 끄치지 않았습니다.

새로 배운 지식을 리용하여 뜯어 보고 맞추어 보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기에 힘썼습니다.

지난 6월 8일 원수님께서 우리 학교를 다녀 가신 두 돐되는 날 학교에서는 크루쇼크 전람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분단 동무들은 이 전람회에 훌륭한 전람품들을 내 놓았습니다.

김 영철 동무는 오이와 호박을 접해서 만든 새로운 품종을 내 놓았고, 엄 선옥 동무는 세 그루의 호박 넌출을 합쳐서 큰 호박이 달리게 한 경험을 내 놓았습니다. 반원 모두가 동물 크루쇼크원인 6반 동무들은 한 번에 토끼 한 마리에서 14 마리의 새끼를 내운 경험을 내 놓았습니다.

우리 분단 물리 크루쇼크원들은 천평 저울, 기중기, 활차, 유리 관대, 바람개비 등을 만들어 전람회에 내 놓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조합에 나가 일하며 실습하며 새로운 농산 지식을 배우는 우리들은 농사 일에 무척 재미를 부치고 장차 고향 마을을 협동 벌을 멋지게 꾸릴 크나큰 포부를 안고 배워 나갑니다.

학교에 오고 가는 길에서 대 풍작을 이룬 협동 벌을 바라 볼 때마다 원수님의 말씀 따라 실험 실습을 더 잘 하여 농촌의 믿음직한 앞날의 주인으로 자랄 결의를 굳게 굳게 다지군 합니다.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실행을 위해 배우고 또 배워 온 우리 분단 동무들의 학업 성적은 67%의 우등 최우등으로부터 지금은 92%의 우등 최우등으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함께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답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원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더욱 빛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모로 발전된 훌륭한 일'군으로, 원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슨 일을 맡기시든 척척해 낼 수 있는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안변군 배화 중학교 제 4 분단
(모범 분단) 위원장 김 형창

획» 활동, «꼬마 완충기 계획» 활동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소년호» 렬차와 «소년호» 기중기, 그리고 70 대의 뜨락또르, 9 대의 자동차를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장에 선물하였다.

모두다 최우등

옛 사람들은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보고 «불쌍한 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로동당 시대에 사는 우리는 «복동»이지요.

그것은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어버이처럼 따뜻이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들은 이 행복, 이 은혜를 학과 학습으로 보답하기 위해 남산 고중에서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고 관찰하며 실험, 실습해 보면서 배운 지식을 넓고 깊게 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에서 뒤떨어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 학교를 다녀 가신지 벌써 5 년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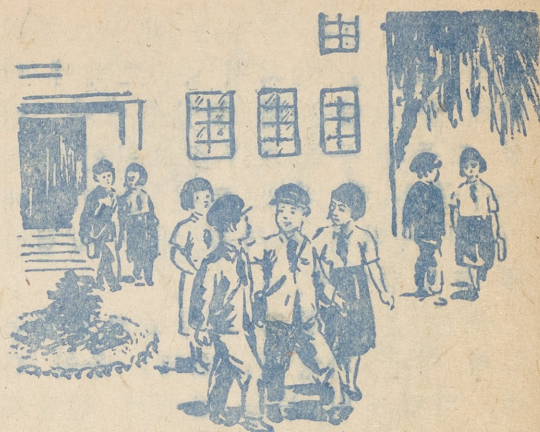
1957년 8월 24일 원수님은 우리 학교를 돌아 보시고 체육 시설도 갖추고 학교 주위에는 나무도 많이 심으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담한 환경에서 자라야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5년을 하루 같이 원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깨끗한 학교에서 튼튼한 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새들이 깃드는 우리 학교

김 일성 원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무를 많이 심어 학교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실 그 때만 해도 우리 학교 두리에는 불과 몇 그루의 애나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마음은 어딘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학교를 아름답게 꾸리자!》라는 제목으로 단 총회를 가지고 모두가 한 사람 같이 나무 심기에 떨쳐 나섰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학교를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밀 설계도를 만들었지요.

설계도에는 학교 두리에 봄이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로 아롱질 사과, 배, 밤, 대추, 감, 은행나무들을 심기로 하고 운동장에는 김 일성 원수님의 《현지 교시 공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꽃밭들을 만들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학교 뒤 양지 바른 곳에는 파일 나무들과 포도 나무들을 심었고 선죽교 쪽으로는 버드나무, 아까시야, 벗 나무들을 심고 화단에는 매화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우리들은 책 《만경대》에서 원수님이 어려서 고향 만경대에 나무를 심은 이야기를 가지고 감상 모임을 조직하였고 동요, 동시, 작문 등을 지어 읊으며 자기의 결의들도 다지였습니다.

이리하여 동무들 속에서는 학교의 나무 한 대, 꽃 한 포기라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커갔습니다. 나무를 심은 그해 여름 비'바람 부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8 분단의 고 을주 동무는 김 일성 원수님의 《현지 교시 공원》에 심은 나무가 걱정되여 학교에 뛰쳐 나와 집에서 가져 온 막대기로 심은 나무 가지들을 바쳐 놓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와 같은 일은 흔히 있는 이야기로 되였습니다.

지금 학교 둘레에는 1,500 그루의 나무들이 하늘에 가지를 펴며 싱싱히 자라나 우리 학교는 마치 큰 공원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아졌지요.

우리들이 달아 준 새 둥지에는 새들이 찾아 와 노래 부른답니다.

방과 후이면 서늘한 그늘 밑에서 새들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학교 록지에는 푸른 잔디가 주단 같이 깔렸고 꽃밭에는 120 가지의 꽃들이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우리들의 붉은 마음인양 아름답게 피여 나고 있습니다.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들의 교실도 몰라 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님께서

진 동무를 친절히 도와 주어 최우등생으로 끌어 올렸지요.

그리하여 우리 42 명의 전체 분단 동무들은 모두 최우등생이 되였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제 4 차 당 대회에 드리는 선물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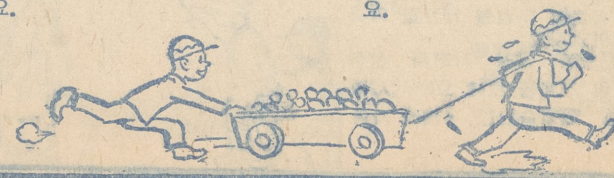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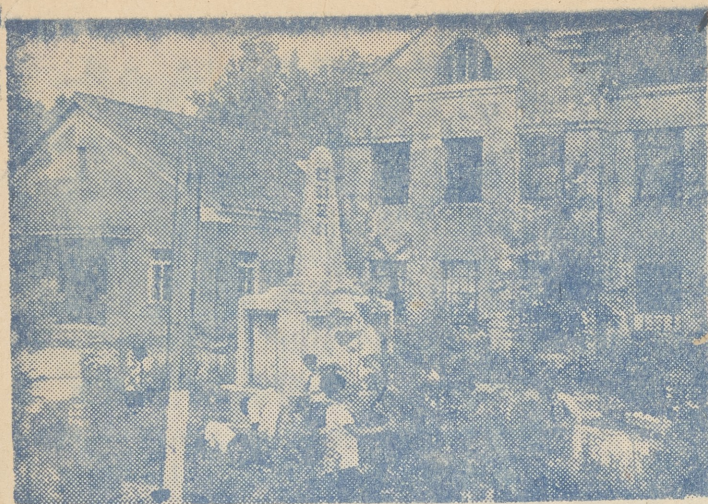
평북 염주군 염주 초등 학원
제 7 분단 위원장
김 농덕

영예의 붉은 수첩

12분단

이 수첩을 한장한장 펼치면 그림보듯 안겨 오는 우리 분단 동무들!
한자 두자 읽어 가노라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동무들의 아름다운 마음씨.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수첩을 펼쳐 보기로 합시다.

① 3월 20일이였지요. 눈석이 물은 넓다란 길로 흘러 들어 사람들은 마른 땅을 골라 짚고 가노라 이리껑충 저리 껑충 걸어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딸따리에다 자갈을 싣고 밀고 끌고 가는 두 아이만은 태연히 물을 걷어차며 뛰여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더러 부잡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싣고 온 자갈을 물 웅뎅이에다 척 부리고 길을 닦는 것이였어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집 처럼 아담하게 가꾼다

친히 들어 와 보신 교실을《영예의 교실》로 정하고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제일 모범인 분단 동무들에게 이 교실에서 공부할 영예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8월 24일 원수님이 다녀 가신 날을 뜻 깊게 기념하는 단 총회에서 결정하지요. 지금 이 교실에서는 영예의《모범 분단》칭호를 받은 15 분단 동무들이 공부하고 있지요.

창문을 열면 화단에서 풍겨 오는 향기로운 꽃 냄새가 코를 찌르고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설렁거리는 우리 학교—여기서 우리들은 행복하게 공부합니다.

아담하고 해'빛 밝은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때마다 우리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발굽 밑에서 신음하던 때 일을 생각하지요. 그때 우리 학교는 미국놈들의 병영으로 되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 같은 아이들이 학교는 고사하고 깡통을 차고 거리를 헤매야 했지요. 그런데 당과 원수님의 품에 안긴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담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들의 위생 생활도 날로 달라져 갑니다. 우리들은 밖에서 놀다가 교실에 들어 갈 때면 현관에 놓인 소독수에 손을 씻고 들어 갑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 오면 복습을 시작하기 전에 방 안과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며 아침엔 일찍 일어나 뜰을 쓸고 꽃밭을 가꿉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동생들과 같이 목욕하러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로 되였습니다.

그는 김 덕삼, 배 용익 동무였지요.

② 하루의 공부가 빨리 끝나기를 은근히 마음 속으로 기다리던 정 영길 동무는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 불이나게 집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대성산 동물원 구경을 가기로 약속했던 것이였지요.

그가 집으로 달려 가면서 상점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면 되겠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큰 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네거리 앞에서 망서리던 할머니가 그의 앞으로 다가 서며 길을 묻는 것

이 아니겠어요. 《저기로 가면 돼요!》 하고 숨 가쁘게 말한 그는 계속 달려 갔습니다. 한참 가던 그는 어딘가 마음이 지펴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가 할머니는 아직도 어디로 가야할지 망서리고 있는 것이였습니다. 이것을 본 영길 동무는 붉은 넥타이를 만져 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로 달려 가 동성동까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돌아 왔지요. 대성산 동물원에는 이담에도 얼마든지

모두다 구리'빛 몸

우리는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많은 체육 기구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500 여 개의 체육 기구들이 마련된 운동장에서 우리들은 매일 해'별에 몸을 태우며 신이 나게 운동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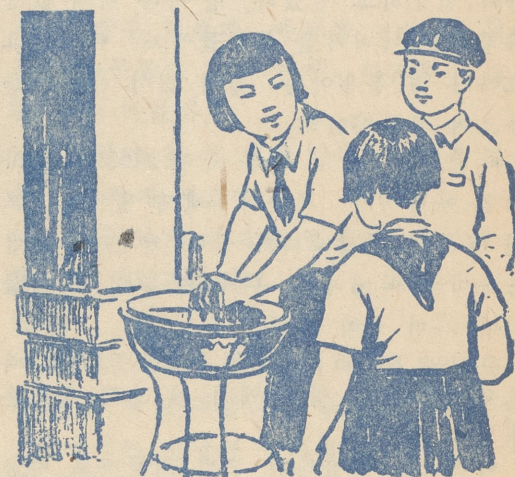
해마다 8월 24일 원수님의 교시 실천을 총화짓는 날에는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몸을 어떻게 단련해 왔는가를 총화하는 학교 체육 대회도 가집니다. 특히 해마다 준비하는 마스겜《우리는 원수님의 말씀을 빛내였습니다.》는 구경 오신 아버지, 어머니들을 경탄케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을《체육의 날》로 정하고 여러 가지 재미 있는 체육 경기들을 조직하지요.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지켜 우리들은 작년에 학교 앞 개울을 막아 수영장도 만들었습니다.

12 분단 동무들은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모두가 인민 체력 검정 소년급에 합격하였습니다. 몸이 튼튼해지니 출석률도 모두 100 %로 올라 가고 학업 성적에서도 98 %의 동무들이 우등, 최우등생이 되였지요.

구리'빛 몸에 공부 잘 하는 우리 학교 동무들은 인민 체력 검정《소년급》에 85 %가 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김 일성 원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조선 소년단 창립 15 주년을 맞이하여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 주신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대로 더 열심히 학습하면서 더욱 튼튼히 몸을 단련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개성시 선죽 중학교 단
위원장 백 영배

갈 수 있으니까요.

③ 락제 과목이 많은 탓으로 2학년에 진급하지 못하고 우리 분단에 들어 온 배 용익 동무는 한번은 단 위원인 허 덕일 동무에게 막 대들었습니다. 그 까닭은 자기를 자꾸 따라 다니며 공부를 하자고 한다는 것으로였지요. 그러니 그의 학습을 도와 주려고 애 쓰던 덕일 동무는 얼마나 억울 했겠어요. 그러나 덕일 동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분단이 준 위임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용익 동무네 집에 더 자주 찾아 갔습니다. 그러면서 혁명 전통 학습도 같이 하고 그가 모르는 것은 알도록 몇 번이고 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배 용익 동무는 덕일 동무의 도움을 받아 락제생을 면하게 됐지요. 이러한 동무를 돕는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동무를 사랑하고 웃사람을 존경하며, 국가 재산을 애호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영예롭게도 이번에 《모범 분단》 칭호를 받게 되였답니다.

평양시 동성 중학교
제 12 분단 위원장
김 미현

피묻은 소년단 휘장

1950년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시기였다.

황해남도 장연군 락연 중학교 소년단원인 조 봉옥이가 살던 봉화리 마을에도 원쑤놈들이 기여 들어 왔다. 원쑤놈들은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 비참하게 학살하였다.

원쑤놈들은 락연 광산의 모범 로동자이며 로동당원이였던 봉옥이의 어머니도 광산 굴에 끌어다가 모진 고문 끝에 무참이 학살하고 말았다. 단 하나 밖에 없던 사랑하는 어머니를 원쑤들에게 빼앗기고 고아가 된 봉옥이는 정신 없이 어머니를 부르며 통곡하였다.

해방전에 락연 광산 운광공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왜놈의 채찍 밑에서 모진 로동에 시달리다가 돌아 가신 후 어린 봉옥이와 어머니는 나무 껍질로 끼니를 이어 가며 살아 왔다.

그러나 8. 15 해방 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품 속에서 이 모든 불행은 옛말로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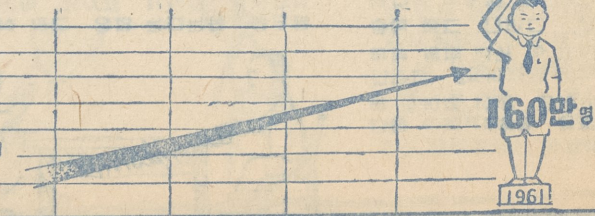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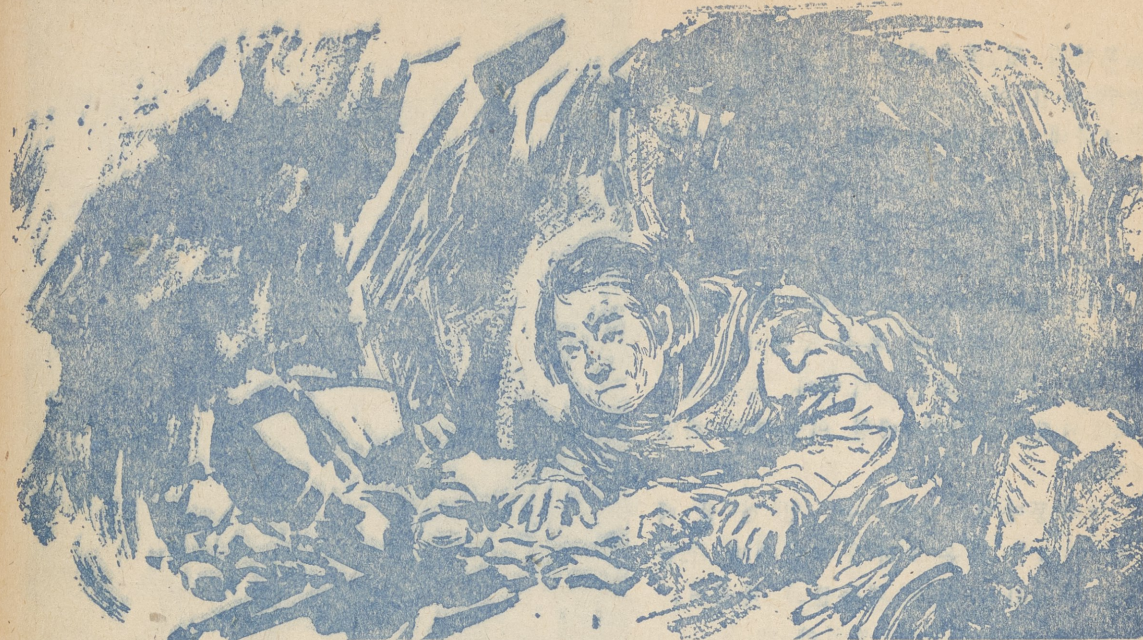
어머니는 광산에서 모범 로동자로 마음껏 일하시였고 봉옥이는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였다.

봉옥이는 늘 최우등을 했고 모범 분단의 분단 위원장으로 사업하였다. 1949년도에는 영예로운 중앙 모범 소년단원까지 되였다. 어머니는 딸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무한히 행복해 하셨고 봉옥이도 항상 기쁨에 싸여 살았다.

그러나 간악한 미제 원쑤들은 이 행복을 짓밟았다.

이런 생각을 더듬으며 하염 없이 앉아 울고 있던 봉옥이의 머리 속에는 자기가 그처럼 항상 즐겨 읽던 《빨찌산의 딸》의 주인공 만금이의 생각이 떠 올랐다.

만금이는 여덟 살 때 아동단원이 되였고 아홉 살에는 아동단 분대장으로 싸우지 않았는가! 그는 열 한 살인 어린 몸으로 고아가 되여서도 원쑤를 갚겠다고 오히려 원쑤 놈들과 더 용감히 싸우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바보 처럼 울고만 있다니… 그렇다! 어머니와 마을의 애국자들을 죽인 원쑤를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 그래서 행복한 품—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장군님의 품 속에서 자라는 조선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붉은 대렬도 자랐다

당과 원수님의 두터운 배려와 사랑 속에 우리 소년단원들의 대렬도 몰라 보게 자랐다. 그리고 민청의 교대자로, 어린 붉은 집단으로 튼튼히 자랐지요.

《원쑤와 싸우자! 그래서 김 일성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는 조선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키여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한 봉옥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북 씻고 일어 섰다. 앉아 울고만 있던 자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봉옥이는 일어 서던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이 갔다. 거기에는 자기가 그처럼 사랑하던 소년단 휘장과 그리고 비행기, 땅크 헌납금이 든 주머니가 있였던 것이다.

봉옥이는 전쟁이 시작되자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게 위문 편지를 많이 조직하여 보내는 한편 용감하게 싸우는 아저씨들에게 더 많은 비행기, 땅크를 보내기 위해 분단 동무들과 함께 파철, 파고무를 모으는 일을 하였다.

이리하여 천 여 원의 비행기, 땅크 기금을 마련하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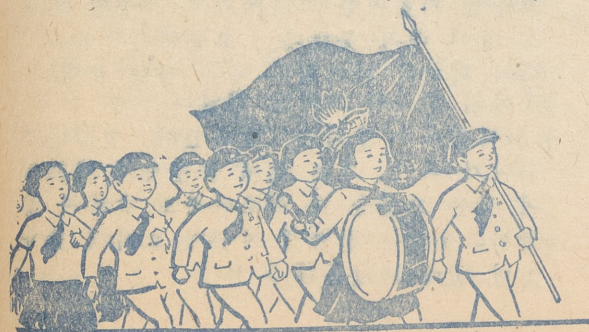
그러나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가 시작되여 비행기, 땅크 기금은 보내지 못하였다.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다시 돌아 오는 날 까지 잘 간직했다가 반드시 전하자!

봉옥이는 헌납금 주머니를 더 깊이 깊이 간직해 왔던 것이다.

1) 제 3 차 당 대회가 있은 1956년도에 우리 소년단원 수는 110만이였다. 그러나 제 4 차 당 대회를 맞는 오늘은 160만으로 자랐다.

2)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지금 이 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모범 분단》 칭호 쟁취 운동에 떨쳐 나선 분단은 얼마나 많은가! 창덕 학교 12 분단 동무들이 이 운동에 첫 발을 내디디던 때로부터 1 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벌써 628 개 (1961년 9월 9일까지)의 분단이 영예롭게도 《모범 분단》 칭호를 받았다.

고아가 된 봉옥이는 이 때부터 하는 수 없이 이웃 집에 살던 최 순란 할머니네 집에서 살았다. 순란 할머니네 집에는 봉옥이와 한 반이였던 박 선애라는 동무가 있었다.

순란 할머니네 집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놈들에게 학살 당한 고 영희, 김 진택 동무들이 자주 모였다.

동무들이 모일 때마다 봉옥이는 《빨찌산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아동단원 만금이는 열 한 살 때 량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였지만 조금도 락심하지 않고 왜놈들과 싸웠어, 우리는 만금이처럼 싸워야 해.》

봉옥이는 이렇게 동무들의 힘을 돋구어 주면서 원쑤를 갚을 데 대하여 의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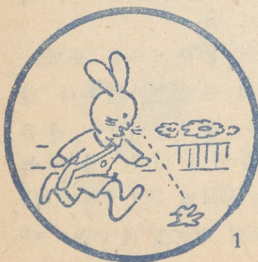
이들은 마을 인민들에게 인민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며 가까운 앞날에 다시 돌아 온다는 것을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투쟁은 점점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11월 28일 밤이였다. 이들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마을에 더 많은 삐라를 붙이며 놈들의 무기도 몰래 빼앗아 내자고 의논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쑤놈들은 어떻게 냄새를 말았는지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 들었다. 놈들은 총탁으로 후려 갈기며 무슨 의논을 하고 있었느냐고 대라고 날쳤다.

봉옥이는 동무들에게 눈짓으로 절대 굴하지 말자고 신호하였다.

놈들은 이들을 꽁꽁 묶어 가지고 끌고 갔다. 옷이 다 찢어지고

《얘들아! 우리는 〈빨찌산의 딸〉의 만금이가 되자…》

피투성이가 된 이들의 몸에는 사나운 눈보라까지 사정 없이 휘몰아쳤다.

놈들은 물이 허벅다리까지 오는 굴 속에 그들을 가두고 칸데라 불로 얼굴과 몸을 지지며 곡괭이 자루로 마구 후려 갈겼다. 나중에는 뾰족한 못으로 살을 막 찔렀으며 손'바닥에 못까지 박았다. 간악한 원쑤놈들은 어린 그들에게 이처럼 고문을 가했지만 그들에게서 아무런 비밀도 알아 내지 못했다. 고문하던 놈들이 나가 버리면 아이들은 아픈 몸을 끌며 봉옥이의 주위에 모이군 하였다.

《얘들아! 우리는 〈빨찌산의 딸〉의 만금이가 되자. 그는 일제 놈들에게 체포되여 갖은 고문을 다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았어,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 오래지 않아 인민 군대가 나온다.》

봉옥이의 말을 듣는 그들은 인민 군대가 돌아 오고 다시 행복의 나래를 펴고 학교로 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려 보며 새 힘을 얻군 했다.

제아무리 악독한 놈들의 고문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놈들은 하는 수 없이 그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나갔다.

그들은 원쑤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불렀다.

밤은 흘러 새벽이 되였다. 놈들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시체 가운데서 신음 소리를 하며 움직이는 한 아이가 있었다. 그는 봉옥이였다. 놈들이 쏜 총탄이 다행이 빗 맞았던 것이다.

봉옥이는 일어 나려고 하였으나 무엇인가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 일어 날 수가 없었다. 놈들은 총으로 쏘아 눕히고도 모자라 돌을 주어다 가슴을 짓눌러 놓았던 것이다.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힘을 다하여 겨우 일어 난 봉옥이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듬어 순란 할머니를 찾아 갔다.

봉옥이는 피 묻은 옷을 벗고 순란 할머니가 주는 선애의 옷을 갈아 입었다.

봉옥이는 자기가 입었던 옷에서 피 묻은 휘장과 비행기, 땅크 헌납금과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게 보낼 위문 편지를 꺼내여 다시 정성 들여 종이에 싸고 또 쌌다. 그리고 웃옷 안 주머니에 넣고 바늘로 꿰매였다.

《할머니! 나는 인민 군대나 빨찌산 아저씨들 있는 데로 찾아 가겠어요. 할머니! 인민 군대가 다시 나올 때까지 몸조심하세요.》

순란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다.

봉옥이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있는 곳을 찾아, 김 일성 장군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 부상 당한 몸을 끌며 북으로! 북으로! 걸어 갔다.

송화에까지 이른 그는 지치고 지쳐 더 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송화에 있는 외가 집에 들려 며칠 쉬여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편 봉옥이가 다시 살아나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원쑤 놈들은 사방에 앞잡이들을 보내여 찾아 다나다가 봉옥이네 외가 집에 까지 밟아 왔다.

불행하게도 봉옥이는 다시 원쑤놈들에게 붙잡히여 자기 마을로 끌려 왔다.

무서운 고문이 또 다시 시작되였다.

놈들은 《어디로 갈려구 했어, 빨찌산에 갈려구 했지, 빨찌산 있는 곳을 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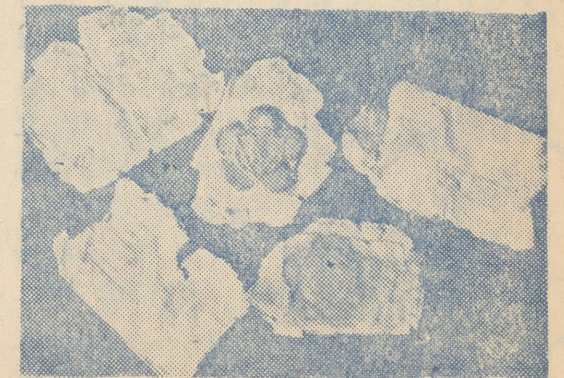
하루도 몇 차례씩 고문을 들여대였다.

그럴 때마다 봉옥이는 증오심에 불타는 눈으로 원쑤들을 쏘아 보며 《옳다, 빨찌산에 가려고 했다. 총을 메고 와서 네놈들을 몽땅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행복한 공화국의 품을 다시 찾으려 했다.》

승냥이 놈들은 악에 바쳐 봉옥이를 광산 굴로 끌고 가서 다른 애국자들과 함께 100 메터나 되는 수직갱 (곧게 아래로 내려 간 굴)에 차 넣었다. 봉옥이는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면서도 굴하지 않고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

이 때로부터 8년이 지난 1958년 6월 락연 광산 인민갱에서는 원쑤놈들에게 무참히 학살 당한 800 여 명의 애국자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였다.

이 때 조 봉옥의 시체와 함께 그가 가슴 깊이 품고 있던 피 묻은 소년단 휘장과 비행기, 땅크 헌납금 천 여원,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게 보내려던 10 통의 위문 편지가 나왔다.

지금 황남 장연군 락연 중학교 단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소년단 실에 그의 유물를 귀중히 보관하고 그의 불타는 애국심을 본받아 나가고 있다. (본사 기자)

봉옥이가 간직했던 소년단 휘장과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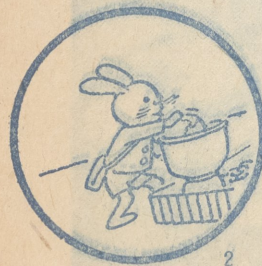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원으로

5 년 전까지만 하여도 나는 소년단원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원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항상 소년단 생활을 하면서 장차 영예로운 민청원이 되고 다음에는 로동당원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1958년 초급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희망 대로 직물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일하는 나에게 로동의 하루 하루는 그 대로 기쁨의 나날이였습니다.

공장에 들어 간 첫 날부터 나는 1957년 7월에 개성 직물 공장을 돌아 보시고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짜서 인민들에게 보내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어김 없이 실천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술이 어려서 하루 계획을 100 % 이상 더 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자 동무!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훌륭히 실천하자면 기술을 빨리 배워야 하오. 항일 빨찌산들이 연길 폭탄을 어떻게 만들었소.》

민청 위원장 동무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씀은 나를 무한히 고무하였습니다.

그 후부터 민청 위원장 동무와 당원인 박 영애 기사 아주머니는 거의 매일과 같이 나를 친히 지도해 주었으며 나의 기술 습득을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일이 끝나면 매일 도서실에서 여러 가지 기술 서적들을 빌려다 보았고 공장에서 조직하는 기술 학습에 빠짐 없이 참가하였습니다.

어느 날 내가 기술 학습을 마치고 주물 직장 곁을 지나 갈 때였습니다. 《와!》하고 떠들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선로 곁에까지 뛰여 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해공인 황 금호 아바이가 류출구가 터지려는 것을 보고 미처 진흙을 가져다 틀어 막을 새가 없어서 솜 동복을 입은 몸으로 막아 위험 속에서 쇠'물을 구해 냈던 것입니다.

황 금호 아바이가 오랜 로동당원이라는 것을 나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쇠'물 구멍을 막는 그 용감성, 희생성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날 밤 나는 당원이란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느끼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빨리 그런 당원들의 뒤를 따를 것을 마음 다졌습니다.

당에 충실한 딸이 되자면 그처럼 당 앞에 맡은 일을 위해 목숨도 서슴치 않는 그런 붉은 사상을 키우며 동시에 기술 수준도 더 빨리 높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꾸준히 배우며 기술을 키웠습니다. 드디여 8 개월 만에는 3 급 공으로부터 7 급 공이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매일 계획을 160 % 이상씩 실행하였고 1 등품 천을 80 % 이상씩 짜 내였습니다.

민청에서는 나를 높이 칭찬하여 주었고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 후보 당원으로 보증까지하여 주었습니다.

후보 당원 생활을 거친 나는 드디여 금년 5월에는 영예로운 조선 로동당원으로 입당하였습니다.

소년단과 민청에서 꾸준히 배우며 자랐고, 당의 따뜻한 사랑과 지도가 아니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훌륭한 로동당원으로까지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 로동당원이 된 나는 오직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칠 결의에 불타고 있습니다.

천리마 작업반원인 나는 지금 우리 당 제 4 차 대회를 맞으며 오직 당에 더욱 충직하여 당이 준 경공업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일 데 대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 나의 있는 힘, 있는 지혜를 다하고 있습니다.

개성 직물 공장 청년 직장
2 중 천리마 작업반
리 영자

랭수 마찰

랭수 마찰은 몸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랭수 마찰은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다.

그.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야에 랭수를 떠서 먼저 팔뚝에 물을 끼얹는다. 다음 수건을 적시여 꾹 짜서 손, 팔, 어깨로 올라 가면서 비비고 가슴, 잔등, 허리, 배 순서로 재빠르게 비벼야 한다. 허벅다리와 종다리는 나중에 비벼야 한다.

수건을 자주 적시였다 짜서 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너무 힘 있게 비비지 말고 피부가 벌겋게 될 때까지 가볍게 골고루 비벼야 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 좋다.

너무 오래하여 온 몸에 《닭의 살》이 돋고 추워 떨게 되여서는 안된다.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약 5 분 간 하는 것이 좋고 점점 연장하여 15~20 분 간 또는 그 이상 할 수도 있다.

랭수 마찰은 아침 체조를 한 후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 것도 좋다.

랭수 마찰은 하다 말다 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다. 지금부터 습관하면 추운 겨울에도 계속할 수 있다.

랭수 마찰을 매일 계속하면 몸이 튼튼해 져서 감기나 다른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뇌수가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부도 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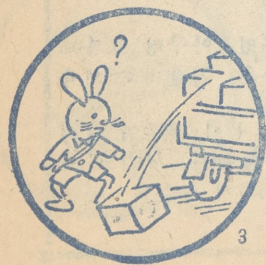
나 어린 가슴에 끓는 애국심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궂은 비는 한낮이 되자 더욱 세차게 퍼부었습니다.

퍼붓다가는 멎고 멎었다가는 더 굵은 비'방울을 내리 부었습니다.

8. 15 명절 날에 내 놓을 마스껨 련습을 하려 학교에 나왔던 제 8 분단의 정 금옥 동무는 동무들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갈림'길에서 헤여졌습니다.

아침에 비옷을 입고 오지 않은 것이 후회 되였습니다.

눈 앞이 뽀얗게 내리 드리운 비'줄을 헤치며 금옥이가 고개 하나를 넘었을 때 넘실 넘실 춤 추는 조합 벌이 안겨 왔습니다. 고개를 무겁게 숙인 탐스러운 벼 이삭들은 볼수록 탐스러웠고 백만 톤 알곡 증산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을 도와 드린 로력의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였습니다.

금옥이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열릴 제 4 차 당 대회에 100만 톤 증산의 선물을 드린 자랑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두리 둥둥 북을 울릴 그날을 눈 앞에 그려 보며 뛰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쏴! 철러덩》하는 물'소리 가 달려 가는 금옥이를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게 했습니다.

금옥이는 이 이상한 물'소리가 어디서 나는가고 사방을 살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심상치 않은 물'소리였습니다.

금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관개 수로의 물이 넘쳐 둑을 밀고 흘러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넓은 논판에 막 밀려 들어 사정 없이 벼 포기들을 쓸어 눕힐 게 아닙니까.

《아이, 저걸 어쩌나! 빨리 막아야겠는데》

금옥이는 눈 앞을 가리는 비'물을 씻으며 그리로 뛰여 갔습니다.

그는 돌맹이와 흙을 주어다 막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박힌 돌맹이를 애써 뽑아 모아 막으면 떠 밀리고 또 떠 밀리여 물은 《쏴—》소리를 치며 흐르는 것이였습니다.

금옥이는 막 안타까왔습니다.

《어떻게 할가? 뛰여 가서 마을 어른들을 데려 올가?》 금옥이는 더욱 안타까왔습니다.

금옥이네 마을은 여기서도 15 분은 더 걸려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 사이면 넓은 논판의 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금옥이의 머리에는 《소년단원들은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한다》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학습하면서 우리는 혁명 선배들처럼 나라와 인민의 것이라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 내는 사람이 되자고 토론 하던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하고 생각한 금옥이는 쏟아져 나오는 물 구멍을 어린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막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막아 내기에는 금옥이의 어린 힘이 모자랐습니다.

금옥이의 어린 몸을 떠 밀고 물은 차츰차츰 량 옆으로 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풀 포기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 섰습니다.

금옥이의 힘은 진할대로 진했습니다.

이런 때 누가 뛰여 와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풀 포기도 금옥이의 마음을 알아 주지 못했습니다. 풀포기 마저 뿌드득 뽑혔습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물은 《쏴—》하고 소리치며 금옥이를 떠밀며 흘러 내려 갔습니다.

금옥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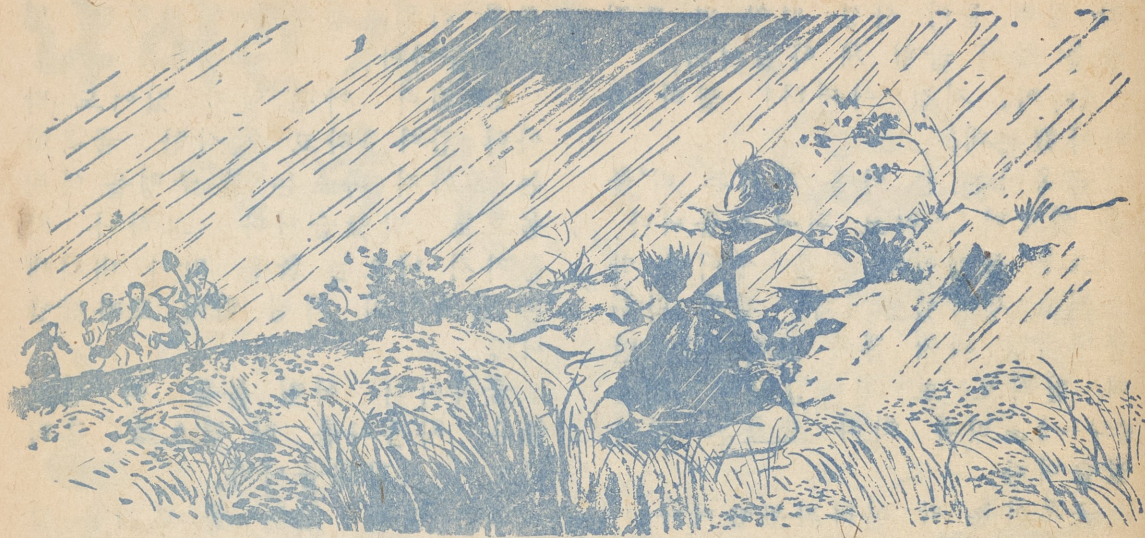
× × ×

련재 만화

철수의 일기 (4)

그림 허 능택

(25)

(26)

금옥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깊은 밤이였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주사를 놓으시던 의사 선생님은 《에키, 잘 자고 일어 났구만》하고 기뻐하셧습니다.

옆에서 안타까이 금옥이의 숨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작업 반장 아저씨와 마을 사람들도 기뻐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벌떡 일어난 금옥이는 《터진 둑은 막으셨나요?》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작업 반장 아저씨에게 묻는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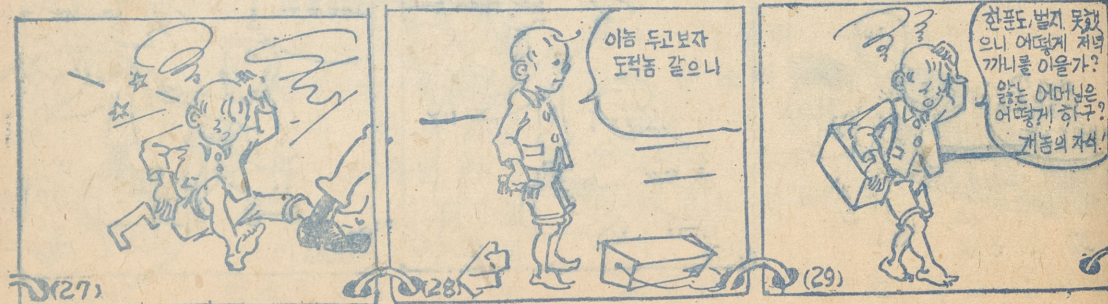
《오냐, 네가 끝까지 막고 있은 덕으로 1,500평이나 되는 논이 구원 되였단다. 참 용하다.》하면서 금옥이를 붙잡고 치하하는 것이였습니다.

금옥이가 물 속에 잠길 때 바로 멀리에서 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삽과 가마니를 들고 뛰여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금옥이를 건져 내고 둑을 막아 낸 것입니다.

작업 반장 아저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금옥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함남도 고원군 상산 중학교 단

통신원 김 원익

나의 산수 학습

나는 산수 과목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일 쉽고 흥미 있는 과목으로 되였습니다.

나는 산수 시간이 되면 어느 때 보다도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습니다. 선생님이 두 번씩 설명하는 대목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장 여백에 알기 쉽게 간단히 적어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 학습장만은 다른 과목 학습장 보다 크게 여백을 남기고 씁니다.

특히 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때는 절대 필기하지 않고 귀담아 듣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야 흑판의 것을 학습장에 적습니다.

만약 내가 선생님의 설명에서 잘 알지 못할 것이 있다면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면 반드시 잊지 않고 물어 봅니다.

집에 돌아 와 복습을 할 때면 학습장 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보면서 머리속의 공식들과 선생님이 두 번씩 설명한 것을 생각하여 봅니다. 그러다가 모를 것이 있으면 학습장을 보군 합니다.

이렇게 배운 문제가 머리에 환히 떠 오를 때면 배운 것을 리용하여 몇 개의 응용 문제를 만들어 풀어 봅니다. 그런 다음 검산하여 답이 척척 맞을 때면 그처럼 기쁜 때가 없습니다. 다른 학과도 그렇지만 산수는 여러 번 같은 문제를 풀어 보고 또 풀어 보며 일상 생활에서 써 보며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니 처음에는 힘들던 산수 과목이 지금은 아주 쉽고 재미 있는 과목으로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계속 최우등의 영예를 지니고 있습니다.

개성 지구 개풍군 롱연 중학교

초급반 1 학년 김 철호

《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받은 동무들

불보다 뜨거운 동지애로

이 번에는 강원도 원산시 원산 초등 학원 단 위원장 김 순희 동무를 소개하지요. 순희 동무는 공부도 잘 하지만 동무를 돕는 마음이 아주 지극한 동무랍니다.

순희 동무는 같은 반의 리 옥녀 동무와 언제나 같이 공부하며 잠도 같이 잡니다.

한 때 옥녀는 전쟁 때 갈라진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늘 근심하면서 공부와 소년단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희는 1 년 동안이나 옥녀를 애써 돕던 끝에 그의 이런 마음을 알아 차렸습니다. 순희는 옥녀를 위하여 세 번에 걸쳐 30 여 통의 편지를 주소 안내소와 각 곳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길주 팔프 공장에 있는 옥녀네 언니를 찾아 냈지요.

그렇게 곁을 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던 옥녀는 이 때부터 순희의 곁에서 자면서 하나하나 배워 훌륭한 소년단원이 됐지요.

순희는 단 위원회에서, 제일 뒤 떨어진 8 분단을 맡아 가지고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동무들을 도와 훌륭한 분단으로 만들었답니다.

김 순희

모범으로 이끄는 분단 위원장

이 동무는 평양시 대동강 구역 동대원 중학교 16 분단 위원장 림 영희 동무랍니다. 이 동무는 학교에서 분단 사업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소년 선전 예술대》의 활동에도 모범이지요.

방과 후이면 빠스 정류장으로 나가 빠스를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모든 면에서 평양시가 전국의 모범이 되게 하라고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4 월 어느 날 저녁이였습니다.

이 날도 영희는 한 권의 노트를 안고 동대원 빠스 정류소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때 앞 뒤에서 빠스와 자동차가 빵빵 마주 달려 오는데 어린 아이 셋이 그 두 사이로 타박타박 걸어 들어 가는 게 아니겠어요. 벌써 자동차는 5 메터 가까이에 왔습니다.

영희는 더 생각할 사이 없이 뛰여 들어 가 두 아이를 먼저 밀어 내쳤습니다. 그런 다음 재빨리 마지막 한 아이를 안고 옆으로 벌컥 자빠지며 굴러 나왔습니다.

이 때 자동차가 영희의 발'길을 스쳐 지났지요. 분단 위원장인 영희는 언제나 분단 동무들에게 소년단원의 의무를 알려 주고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 분단 동무들을 이끌지요.

림 영희

동무들의 앞장에서

이 동무의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작년 (1960년) 우리 《소년단》 잡지 6호 1 면 표지가 생각나지요. 새 교복을 타 입고 경애하는 아버지 김 일성 원수님 앞에 그처럼 행복스럽게 서 있던 최 영옥 동무 말이예요. 그는 지금 평양 초등 학원 단 위원장 이랍니다.

영옥이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에는 여러 학교에서 모여 온 동무들이 많아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동무들 중에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학교의 물건을 소중히 다룰 줄 모르는 동무들도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2 분단의 김 혜정, 민 순애, 리 춘렬 동무들이 더 했습니다. 영옥이는 2 분단에 나가 이 동무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자기도 하면서 이들의 지난 날 생활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며 알고 보니 지난 날 이들에겐 분공도 잘 주지 않았고 혹 준다해도 힘에 겨운 분공을 주어서 불평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영옥이는 위원들과 의논하고 이들에게 힘에 맞는 분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맡은 분공을 잘 해 내도록 도와 주고 단 벽보에 칭찬했지요. 그 후 세 동무는 학원에 있는 《영예의 등록장》에까지 이름이 올랐지요.

영옥 동무는 지금 위원들과 함께 《모범 소년단 단체》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답니다.

최 영옥

3년 동안 동무를 업고 다닌 박 이옥 동무

이번에는 강원도 원산시 원산 중학교 단 분단 위원 박 이옥 동무를 소개합니다. 《조선 소년의 영예상》 메달을 빛내이며 웃는 이 동무는 또 어떤 동무일가요.

이옥 동무는 한 반에서 공부하는 김 순희라는 동무를 3년 동안이나 업고 다니며 공부시켜 우등의 성적으로 만들었다지 않아요.

순희는 어렸을 때 다리를 몹씨 앓아 절뚝거리며 겨우 걷지요.

이옥이는 이런 순희를 3년 동안이나 업고 다녔으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를!

눈보라 우는 날에도 비'바람 부는 날에도 이옥이는 제 동생처럼 순희를 업고 학교에 오갔답니다. 그리고 순희의 곁을 잠시도 떠날세라 공부를 도왔지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가요.

누구든지 이옥 동무네 집에 가 보세요.

그의 책꽂이에는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과 아동단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책이 가지런히 끼여 있습니다.

이 많은 책들을 다 읽고 느낀 점을 또박또박 적어 놓은 《자라는 붉은 마음》이란 수첩을 한 장 한장 펼치면서 동무들은 이옥 동무의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박 이옥

항상 동무들 속에 있는 단 위원장

강원도 문천군 문천 중학교 단 위원장 김 경남 동무가 할 일은 얼마나 많겠어요. 분단마다 잘 도와 《모범 분단》이 되도록 해야하고 소년단원들을 자주 만나야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주 결석을 하고 공부가 제일 뒤떨어진 박 형세 동무를 수없이 찾아 가 여러 가지로 애써 도왔지요. 그래서 형세는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생활도 잘하는 소년단원으로 되여 지난 학기에는 우등의 성적을 쟁취했답니다. 경남 동무는 이 경험을 분단 위원장들과 반장들에게 차근차근 알려 주고 그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이는 분단을 돕는 중에 뒤떨어진 동무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도와 고쳐 주고 그 경험을 위원들에게 알려 줍니다. 경남이가 이렇게 해서 우등, 최우등생으로 만든 동무는 30명도 넘지요. 이렇게 책임성이 강하고 소년단 사업에 열성을 다하는 경남 동무는 지금 4 개 분단을 《모범 분단》으로 만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경남

국가 재산을 자기 눈'동자처럼

박 영애

황남 배천군 일곡 중학교 단 제 4 분단 위원장 박 영애 동무네 분단 동무들은 7년 동안 한 장의 유리도 깨뜨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여기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가요.

1958년 8. 15 명절을 며칠 앞 둔 어느 날이였습니다. 영애는 이날 늦게까지 분단 동무들과 함께 써클 련습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휘몰아 쳤습니다. 교실 앞에 키 높이 자라 실실이 드리운 버드나무가 철석철석 유리 창문을 때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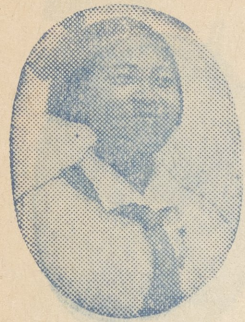
영애는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는 생각에 분단 교실로 뛰어 갔습니다.

영애가 교실에 발을 들여 놓으려 하는 순간 유리 한 장이 거이 떨어지려 했습니다.

영애는 번개처럼 뛰여 가 떨어지는 유리를 치마 폭에 받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근심 어린 눈'길로 치마 폭의 유리를 내려다 봤습니다. 유리는 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영애는 기쁨에 넘쳐 《일 없어》하고 소리 치며 뒤 따라 들어 선 동무들의 얼굴을 쳐다 봤습니다. 그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분단 동무들의 앞장에 서서 유리를 닦았답니다.

흠 하나 나지 않은 이 분단 교실 책상이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흔들리는 의자가 하나도 없는 것에도 박 영애 동무의 아름다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공부도 최우등이지만 맡은 일도 잘하지요

김 순자

이번에는 우리 나라의 먼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함북 라진군 김 용범 유자녀 학원 단 위원 김 순자 동무를 소개합니다. 이 동무는 언제나 최우등으로 공부하면서 다른 동무들도 잘 도와 줘서 동무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습니다. 순자의 손에서는 언제나 책이 떨어지지 않지요. 많은 책을 읽어 지식을 넓힙니다. 순자의 모범을 받은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거이 3권 이상씩의 책을 읽었습니다.

단 위원회에서 소년단원들의 학습을 맡은 순자는 반실마다 찾아 가서 자기의 학습 경험을 이야기하며 돕지요.

그는 일본에서 갓 돌아 와 학업 성적이 좀 떨어졌던 김 해성 동무의 학습을 훌륭히 도와 그를 우등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단 위원회 사업은 물론이고 분단과 반 사업에서도 아주 열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순자가 도와 준 많은 반들이 우등, 최우등으로 공부하는 모범 반으로 되였고 분단마다에서는 《순자 동무처럼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 조직에서 맡은 일을 어김 없이 잘하자》고 한답니다.

40 명 동무들의 정다운 누나

선 우옥

평양 외국어 학원 단 17 분단 (인민반 2학년) 동무들은 선우 옥이를 만나면 모두 누나 누나 하면서 뛰여 와 매달립니다.

옥이가 어떻게 그 많은 동무들의 누나가 되였는지 아세요?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못했어요. 한 번은 옥이가 단 위원회에서 의논된 내용을 알려 주려 17 분단 교실에 들어 갔는데 와왁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만 애가 타서 그대로 나왔대요.

그렇지만 단 위원회에서 맡은 일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했습니다.

생각던 끝에 하루는 동무들에게 《지주와 머슴'군》이라는 옛말을 해 주었지요. 그랬더니 모두들 좋아했습니다. 그 후부터 옥이는 아동단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옛말처럼 재미 있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호실을 찾아 갈 때마다 한 가지씩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옥이를 따랐습니다.

이럴 때 옥이는 소년단원의 의무를 알려 주면서 아동단원들처럼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라자고 했습니다.

단 기수인 옥이는 이렇게 조직에서 맡은 일은 어떤 일이든지 꼭 해 내고야 만답니다. 그래 동무들에게서 신망이 높지요.

52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

황 병제

이 동무가 누구냐구요? 함북 김책시 신평 중학교 단 12 분단 위원장 황 병제 동무입니다. 이 동무는 분단 동무들의 앞장에 서서 항상 학습에서나 나라와 학교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무를 사랑하는 데 모범이지요.

어느 날 병제 동무가 우편국에 갔다가 집으로 올 때였습니다. 자동차가 내리막 길을 달리고 있을 때 5 메터 앞에서 두 어린 아이가 놀음에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병제 동무는 《앗?!》하고 뛰여 들어 두 아이를 글어안고 길 옆으로 비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린 운전수는 연신 병제 동무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고맙다!》고 칭찬하였답니다.

지난 겨울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눈보라 치는 날 병제 동무는 새끼를 갓 낳은 분단 토끼가 근심되였습니다. 그는 학교로 뛰여 가 자기 솜옷을 벗어 토끼 새끼들에게 덮어 준 후에야 집에 돌아 왔답니다.

병제 동무는 5년 간 하루의 결석, 지각, 조퇴도 없었고 계속 최우등을 한 동무에요.

분단의 《붉은 수첩》에는 병제 동무가 한 52 가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적히여 있답니다.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는 단 위원장

박 영신

이 동무는 만경대 학원 단 위원장 박 영신 동무지요.

위원들과 소년단원들에게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단 위원장입니다. 소년단 조직을 위해서는 있는 재간과 힘을 다 하지요.

규률 생활이 제일 뒤떨어졌던 10 분단이 어떻게 《모범 분단》으로까지 추천되게 됐는지 아세요?

그는 10 분단을 자진해 맡고 분단 위원회 계획으로부터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직접 조직해 주고 아침 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기 체조, 학습 등 모든 일의 앞장에서 모범을 보여 모두 따르게 했지요. 그리고는 이 10 분단의 모범을 다른 분단들에서도 본받게 했지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지요.

《소년 신문》,《소년단》에 나오는 자료들을 모두 오려 스크랩을 만들어 연구하고 열성자 강습도 자주 가졌지요.

단 위원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미리 위원들이 생각하게 한 다음 서로 모여 앉아 의논하여 세우고 언제나 위원들에게 일을 고루 분공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위원 14 명이 모두 훌륭하게 역할할 수 있게 만들었지요.

이것을 아십니까?

병 마개가 뽑아지지 않을 때

동무들은 유리 병의 마개가 잘 뽑아지지 않거나 만년필의 마개가 잘 움직이지 않아 애탈 때가 없었는지요?

그럴 때는 뜻뜻한 물에 담구었다 내거나 수건에 뜨거운 물을 적시여 잠간 그 곳에 감아 두었다 움직여 보십시요. 아주 손쉽게 뽑아질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가요?

그것은 유리나 만년필 마개가 가열되면 팽창되여 마개의 구멍이 커지가 때문이지요.

지난 8월 6일에 지구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놀래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사변이 일어 났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가가린 소좌의 뒤를 이어 이번 또다시 쏘련의 우주 비행자 게르만 스쩨빠노비치 찌또브 소좌가 조종하는 쏘련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 2 호》가 지구를 17회 이상 돌고 25 시간만에 지구에 무사히 내려 온 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실에 모두 경탄하며 인제는 정말 먼 달 나라, 별 나라로 갈 날이 눈 앞에 다가 왔다고 흥분을 금치 못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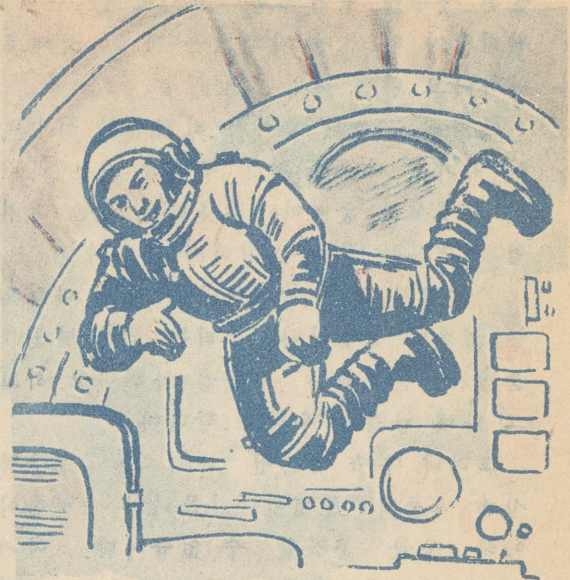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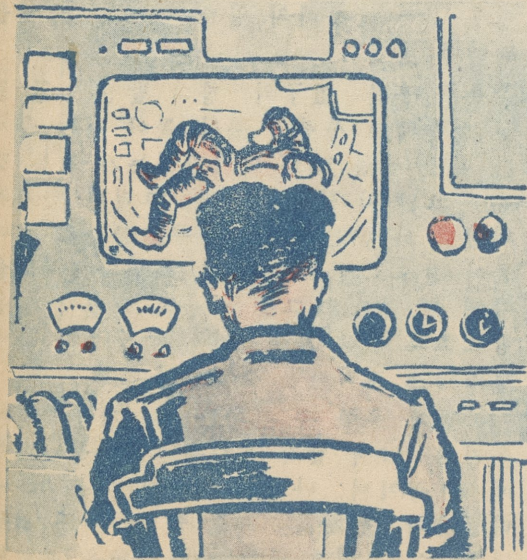
왜 안 그렇겠어요. 이번 《워쓰또크 2 호》가 바로 사람들이 달 나라, 별 나라로 가는 데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과학적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으니까요.

지구를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는 공기가 없고 태양 열을 받는 것도 지구 우에서 와는 달라서 사람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때문에 별 나라, 달 나라로 가자면 사람이 타고 가는 우주 비행선 안에 사람이 숨 쉬며 살 수 있게 산소를 공급 해야하고 적당한 온도, 대기압 (공기의 압력), 습도 같은 것이 보통 때 처럼 인공적으로 마련되여야 합니다.

별 나라로 가자면 이것이 오래 동안 정확히 보장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쓰또크 2 호》는 지구로 부터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 오리만한 거리인 70 만 킬로메터 이상이나 우주를 날고 돌아 왔습니다. 찌또브 영웅의 말에 의하면 우주를 비행하는 동안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뿐더러 지구 우에서 처럼 기분도 좋게 잠도 잘 수 있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것은 사람이 오랜 시간 우주 비행선을 타고 우주 비행을 해도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하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훌륭히 해결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을 하면서 보통 때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 비행선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진다든가 또는 늦어지면 그 속도의 변화 정도에 따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례를 들어서 보통 비행기를 탄 비행사들도 급강하 할 때에는 우리가 내리막 그네를 탈때 느끼는 것과 같은 특수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심하면 정신까지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 속도 변화 때문에 사람의 몸에 주는 영향을 물리학에서는 과부하로 인한 영향이라고 말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사람은 고무 풍선처럼 뜬다.

우주 비행선을 탔을때 이런 과부하 상태는 두번 일어납니다. 한번은 비행선이 지구를 출발하여 차츰 속도를 증가하면서 자기 궤도에 들어 설 때에 생기며 또 한번은 속도를 급속히 늦추면서 지구로 내려 올 때에 생깁니다. 우주를 비행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찌또브 소좌는 과부하로부터 몸에 미치는 영향을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도 이번의 《워쓰또크 2 호》의 비행으로 훌륭히 해결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 있는 것은 우주 비행선이 궤도에 들어서서 일정한 속도로 날아 갈 때에는 지구에서 와는 달리 사람이 둥둥 뜨는 무중력 상태가 생깁니다. 우주 비행선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는 것은 지구가 비행선을 잡아 단기는 힘과 비행선이 운동할 때 생기는 원심력과 서로 비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구의 중력이 더 클 때에는 비행

선은 지구에 떨어지고 말것이며 반대로 원심력이 더 크면 비행선은 다른 곳으로 다라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중력과 비행선의 원심력이 비기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도는 비행선 속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무중력 상태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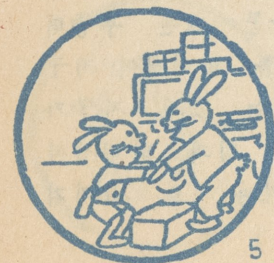
지구상의 모든 물건들은 아래로 내려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 때문에 물건이 끌리우는 방향을 아래라고 하고 그 반대 방향을 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선 속에서는 무중력 상태 때문에 사정이 다릅니다. 사람이 아래 우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둥둥 뜨고 물건을 쥐려고 해도 잘 쥐여 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바람벽 사이에 이어진 바'줄을 잡거나 또는 다른 물건을 밀어서 그 반작용에 의하여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형편에서는 사람이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며 우주 비행선을 조종하는 것도 지구 상에서 보다는 다르게 됩니다.

이런 무중력 상태에서는 사람의 몸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가? 즉 피의 순환, 신경 계통의 작용이 다르게 되지 않을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 어떤 학자들은 무중력 상태는 사람에게 매우 큰 위험을 준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찌또브 소좌는 우주 비행 중에 지구에서 처럼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워쓰또크 2 호》는 매우 주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준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행성인 금성에까지 갔다 오자 하여도 1년 5·이상 걸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오래'동안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 있어도 큰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아직 더 연구되여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구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 다른 곳에도 생명이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우리는 다른 별들에 생명이 어떤 형태로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화성에도 있고 금성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행성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이 직접 그곳에 가야만 더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달을 비롯하여 행성들에는 아주 귀한 지하 자원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생활에 리용하자면 거기에 가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우주 공간에서의 모든 일을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만 되리라는 것을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자동 장치를 가진 설비들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쏘련의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 2 호》에 의하여 얻어진 성과들은 멀지 않아 보통 사람들이 일요일이나 휴가 때에 우주 려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뿐만 아니라 먼 별나라에로의 비행과 행성 간 교통 및 려행은 매우 가까운 장래의 일로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우주 공간 연구의 장래 발전, 끝없는 우주에로 사람이 깊이 들어 가는 문제가 어떤 길을 따라 나아가겠는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의심할 바 없는 것은 우주 공간에 깊이 들어 감으로써 우리는 더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리용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더 풍부하게 더 행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 속 깊이 들어 감에 따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문제를 밝히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먼 다른 별나라들과의 련계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세계에서 일등가는 쏘련의 과학과 기술에 의하여 해결될 것입니다.

그는 첫 아동단원이였다

글 박용호
그림 최순천

(57) 성안에 들어 간 문섭이는 마차에서 뛰여 내려 태연히 거리에 나타났다.

거리에는 일본놈과 위만군놈들이 득실거렸다. 그는 천천히 어느 야장'간으로 발길을 옮겼다.

(58) 야장'간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쇠부치들을 달쿠어 낫이며 호미들을 베르고 있었다. 문섭이는 정치 위원 아저씨가 대준 대로 암호로 말을 걸었다.

(59) 문섭이는 위만군놈들이 있는 학교 문 앞에 나타났다. 이때였다. 운동장에서 쉬고 있던 위만군놈들이 담배를 사자고 문섭이를 불렀다. 문섭이는 무섭기는 하였으나 성큼성큼 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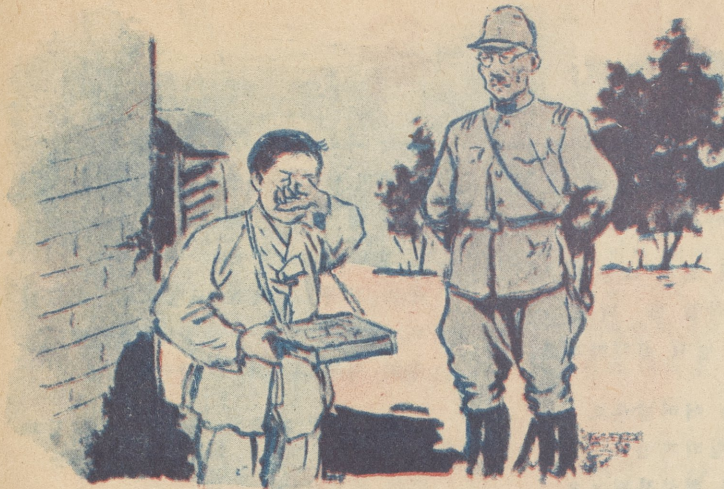
(60) 몇 놈의 위만군이 모여 들었다. 그들은 이것저것 담배를 고르기 시작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그는 병영 안을 슬금슬금 살펴 보았다.

병영 안에서는 한개 대대나 되는 위만군놈들이 득실거리며 마침 총 소제들을 하고 있었다. 문섭이는 기관총이며 적탄통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세여 보았다.

(61) 그가 막 돌아 서려 할 때였다. 일본 지도관놈이 달려 왔다. 그놈은 다짜 고짜로 담배를 사는 위만군놈의 귀퉁이를 때렸다. 그리고는 문섭이를 수상한 놈이라고 붙잡았다. 문섭이는 눈 앞이 아찔하였다.

(62) 문섭이는 왜군 지도관 놈에게 끌리워 들어갔다. 그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더욱 울며불며 야단쳤다.

지도관 놈은 문섭의 뺨을 후려 갈기며 무엇을 정탐하려 들어 왔는가고 매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63) 한참 매질을 하던 지도관 놈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냥 담배 값만 받아야 하겠다고 야단치는 바람에 점점 의심이 풀리는 듯 하였다. 그는 문섭이더러 담배 통을 내려 놓으라고 호령을 쳤다. 문섭이는 우정 엄살을 부리며 또 담배를 뺏으려 한다고 엉엉 울었다.

(64) 지도관 놈은 기어이 담배통을 빼앗더니 덥석 문섭이의 한쪽 귀를 움켜 잡았다. 그리고는 그를 끌고 취사장으로 갔다. 놈은 산처럼 쌓인 낡 식기를 닦으라고 명령했다.

(65) 낡 식기를 보는 순간 문섭이의 머리에는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났다. 이 식기만 정확히 세면 이 병영 안의 왜놈들의 수'자를 대뜸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였다.

그는 세 시간 만에 250개의 식기를 씻었다. 이것으로 보아 왜놈들이 250명이라는 것이 환히 알렸다. 그는 속으로 너머 기뻐 손'벽까지 칠번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독자 문예

약 속

온 식구 다 모인 즐거운 저녁에요.
라지오도 흥겨워 노래 부를 때
우리 집 네 식구 약속했지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모범 로동자
자랑스런 천리마 작업 반 되여
매일 매일 책임량 넘쳐 실행하고요.

집 일을 맡아 보는 어머님은요
인민반 일에도 모범되지만
직장에선 누구보다 혁신자되고요

내 동생 영남이도 한 몫 끼면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유치원에 가서는 일 등 상만 탄대요

나는 나는 학습에서 최우등생되고요
영예의 《모범 분단》 쟁취하고서
우리 당 대회를 자랑스레 맞겠다고

우리 행복 이렇게 모범으로 꽃피워
네 번째 맞이하는 로동당 대회에
우리 자랑 선물하자 약속했지요.

황남 해주시 동해주 공업 학교
1학년 김 창국

기관사가 될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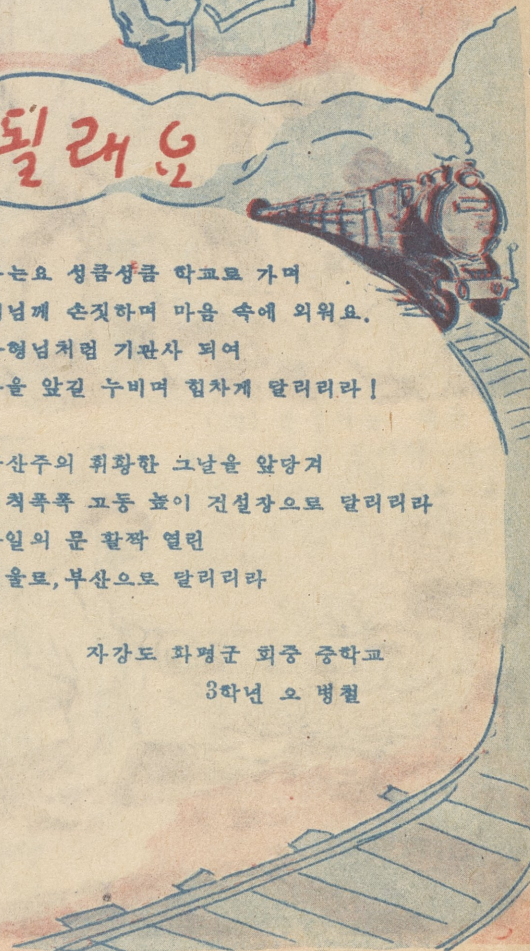
끝없이 뻗은 두 줄기 철'길 따라
칙칙폭폭 우리 형님 목재 싣고 달려요
기관사 우리 형님 참 좋은 형님.
《모범 분단》 빨리 되라 손짓하며 달려요.

벌목부 아저씨들 흥겨운 노래 소리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아! 로동당의 빛'발 따라 살기 좋은 내고향
어서어서 자라서 몸과 마음 바치리.

집이 되고 학교 되고 병원이 될
내 고향 아름드리 나무를 싣고
건설장으로 건설장으로 달리여 가는
기관사 우리 형님 자랑차구나.

나는요 성큼성큼 학교로 가며
형님께 손짓하며 마음 속에 외워요.
—형님처럼 기관사 되여
마을 앞길 누비며 힘차게 달리리라!

공산주의 휘황한 그날을 앞당겨
칙칙폭폭 고동 높이 건설장으로 달리리라
통일의 문 활짝 열린
서울로, 부산으로 달리리라

자강도 화평군 회중 중학교
3학년 오 병철

우리 학교《제지 공장》

우리 학교 서쪽에
자리 잡은 저 집은요
얼마 전에 일어 선
우리 학교 《제지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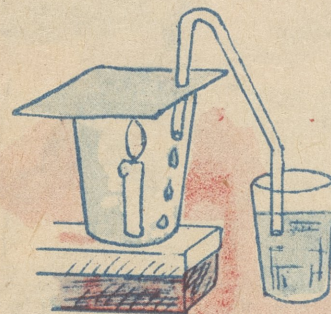
한 장 두 장 모은
파지 싣고 달려 가면
우리 한 일 보람 있어
척척 새 종이 되여 나오죠.

아버지 어머니 뒤를 따라서
배운 지식 익히며 달려 나가는
우리들의 《꼬마 7개년 계획》활동
신도 나지요

쉴 새 없이 돌아 가는
《제지 공장》 기계 소리
우리들을 불러요,
새 지식 새 기술 어서 다져서
공산주의 미래의 참된 주인 되라고.

함남 신포시 룡원 중학교
3학년 홍 익

흥미 있는 실험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 간다.

두 개의 유리 그릇을 준비하십시요, 그림과 같이 낮은 데 놓은 유리 그릇에는 물을 채워 두며 높은 곳에 놓은 유리 그릇에는 초'불을 켜 놓고 뚜껑을 덮어 놓으시오. 그리고 그림처럼 가는 고무관을 두 유리 그릇에 꽂아 놓으시요.

초'불이 얼마쯤 타면 낮은 곳에 놓인 그릇의 물은 가는 고무관을 통하여 높은 곳에 놓인 유리 그릇에로 넘어 갈 것입니다.

왜 그럴가요? 초'불이 타면 유리 그릇 속에 있던 산소가 점점 타 없어 지고 산소 보다 퍽 적은 량의 탄산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산소 만큼 유리 그릇 속에는 공기가 줄어 들어 빈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펌프는 바로 이런 원리를 리용한 것이랍니다.

현상 문제

왜 그럴가요?

두 동무가 병에 든 물을 빨리 쏟으려고 한다.

한 동무는 병을 곧바로 꺼꾸러 뜨려서 물을 쏟고 있고 다른 동무는 병을 엇비스듬히 기울여서 쏟고 있다.

어느 쪽이 빨리 쏟아지며 그 리유는 어디 있는가?

7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 모범 답안

1. 이 두더지는 개구마리라고 하는 새가 물어다가 마른 나무 가지에 끼워 놓았습니다.

개구마리는 메뚜기, 파리 등 여러 가지 곤충과 작은 짐승들인 쥐, 두더지, 개구리, 도마뱀 등을 나무 가지에 끼워 놓았다가 죽은 다음에 먹습니다.

2. 이 버섯은 다람쥐가 따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다람쥐는 잣, 밤, 도토리, 버섯 등을 주로 먹는데 잣, 밤, 도토리는 동지에 넣었다가 먹고 버섯은 나무 가지에 걸어 놓았다가 먹습니다.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 중학교
인민반 4학년 2반 홍 기방

☆ 당선자

함북 경성군 생기령 중학교
신 동현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 중학교
홍 기방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1년 제 9 호 (총 143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 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2455 값 25 전 150,000부 발행

우리는 행복합니다

—개성 소년 회관에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또 오늘 개성에서 사는 우리들을 위해 소년 회관을 세워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이예요!

아름답고 웅장한 이 회관은 길이 85m, 너비 57m, 높이 40m나 되고 700여석의 좌석을 가진 극장과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을 비롯한 35개의 그루쇼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는 몇장의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실에서.

← 《처음엔 나도 이 원리를 몰랐어》 배운 지식을 넓혀 가는 전기 크루쇼크원들

→ 어제와 오늘이 다른 재봉 크루쇼크원들의 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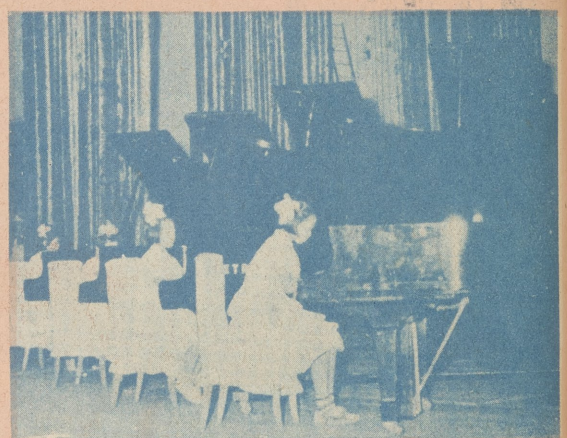
↓ 언제나 흥겨운 노래 소리 울려 오는 음악실에서

개성시 소년회관

재능있는 《꼬마 예술가》들

《이제로부터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를 경축하는 소년 음악 무용 써클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세주 동무는 이렇게 공연 프로를 소개하였지요. 당 대회 대표들 앞에서 공연한 것을 비롯하여 연수십회에 걸쳐 진행한 이들의 공연은 항상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지요.

다음에 이들이 공연한 프로들 중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합니다.

평양시 남산 고급 중학교 초급반, 김 경진, 리 영화, 김 영자, 김 문자 동무들의 피아노 련탄

황북 송림 제철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관현악 《친선의 압록강》

함남 함흥시 흥덕 중학교 소년단원들의 민족 관현악 《김 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삐리리 쿵덕, 삐리 쿵덕…》황남 배천군 수복 중학교 소년단원들이 출연한 농악무 《우리도 백만톤 증산을 도왔어요》의 한 장면

김 광훈